

방송심의 신청서

제목 : SBS 설특선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중 동성 간 키스 신 삭제 및
모자이크에 대한 심의 요청

내용

1. SBS는 2021. 2. 13. 20:40 경에 설 특선 영화로 <보헤미안 랩소디>(이하 ‘이 사건 영화’라 합니다)를 방영했습니다. 이 사건 영화는 그룹 퀸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다룬 영화로서 양성애자로 알려진 프레디 머큐리의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을 주요한 플롯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

2. 그런데 SBS는 이 사건 영화를 방영하면서 임의로 극 중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동성 애인과 키스를 하는 장면 2가지를 삭제하였고, 배경 속에 남성 엑스트라 간의 키스신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. 이에 비해 프레디 머큐리가 이성과 한 키스 장면은 그대로 방영하였습니다(참고자료 1 머니투데이 기사).

3.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“지상파 방송국에서 저녁 시간대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하는 설 특선 영화라는 점을 진중하게

고려한 편집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”, “지상파 채널에서 영화를 방영할 때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이나 흡연 장면을 임의로 편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, <보헤미안 랩소디> 역시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연휴 기간·저녁 시간에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적인 스킨십 장면은 편집했다” 고 밝혔습니다(참고자료 2 경향신문 기사).

4. 그러나 이 사건 영화는 2018년 극장 개봉 당시 12세 관람가로 개봉되었고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음에도 극장 상영 시 위와 같은 삭제, 모자이크 처리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폭력, 흡연 장면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명문으로 과도한 묘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,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성인 간의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스킨십 장면을 폭력, 흡연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. 따라서 SBS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드러낸 것입니다.

5. 한편 남성 엑스트라 간의 키스 장면을 모자이크한 것은 또 다른 특수성을 갖습니다. 영화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키스 장면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시청 당시 바로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모자이크 장면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 모두에게 동성 간 키스 장면이

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. 즉, SBS는 모자이크 장면을 통해 전국의 시청자에게 동성애가 ‘비정상적이고 해롭다’는 차별적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전달한 것입니다.

6. 그러므로 SBS가 이 사건 영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(공정성), 제29조(사회통합), 제31조(문화의 다양성 존중)을 위반한 것입니다.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귀 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.

7. 한편 SBS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그대로 방영할 경우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. 이는 2015년 귀 위원회에서 JTBC가 방영한 <선암여고 탐정단>에 대해 여성 간 키스 장면이 묘사되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‘경고’를 의결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(참고자료 3 연합뉴스 기사). 그러나 청소년의 이성 간 키스 장면이 나온 방송제작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위 경고 의결은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였습니다. 그럼에도 귀 위원회가 이후 잘못된 의결을 바로잡지 않음에 따라 이와 같은 차별적인 방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귀 위원회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. 따라서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

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더욱이 요청드립니다.

2021. 2. 19.

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

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귀중